

세미나(4)

# 딥러닝 비전

정보통계학과 이현섭

# 전달 내용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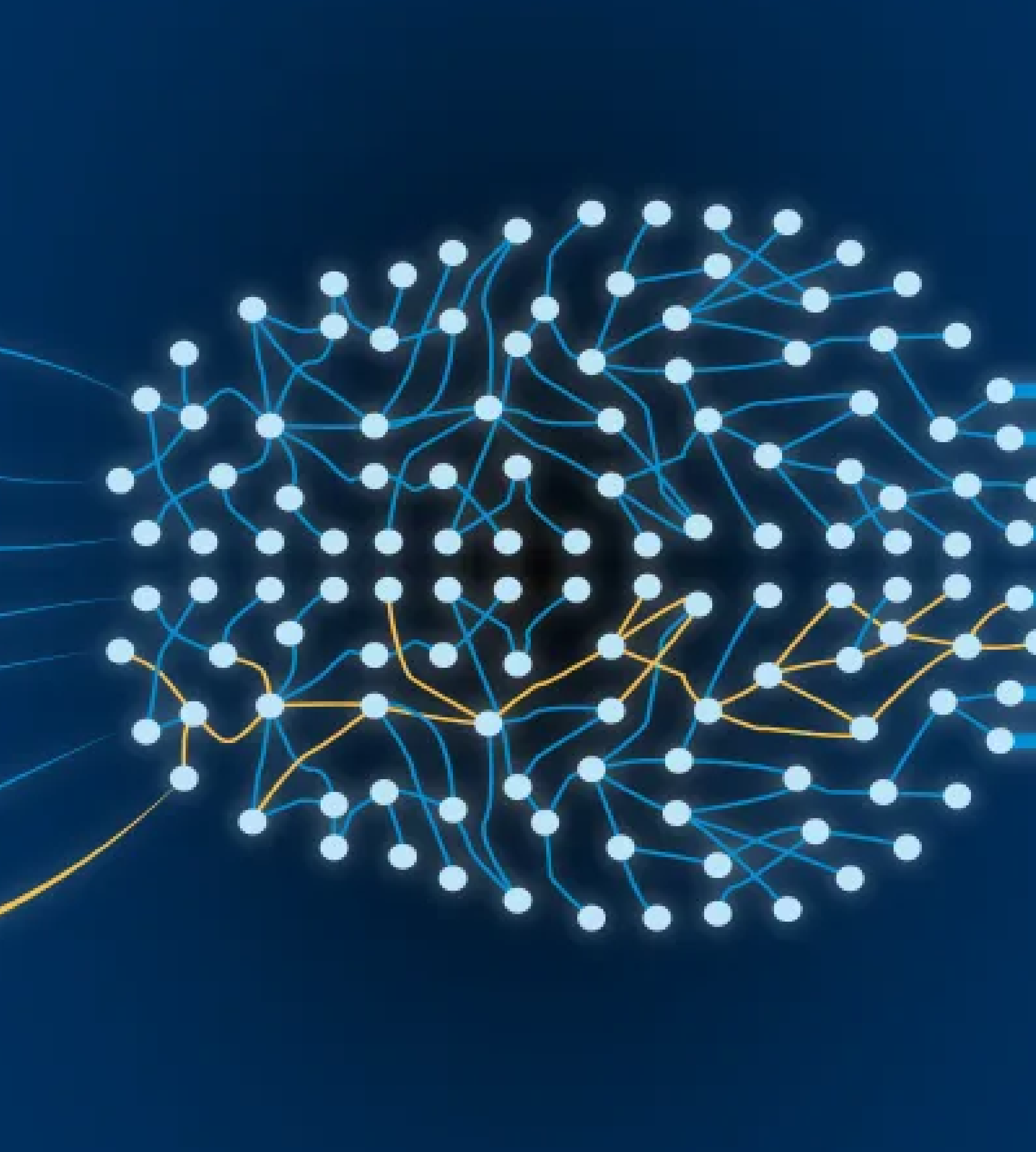
딥러닝과 기계학습

2

인공 신경망과 퍼셉트론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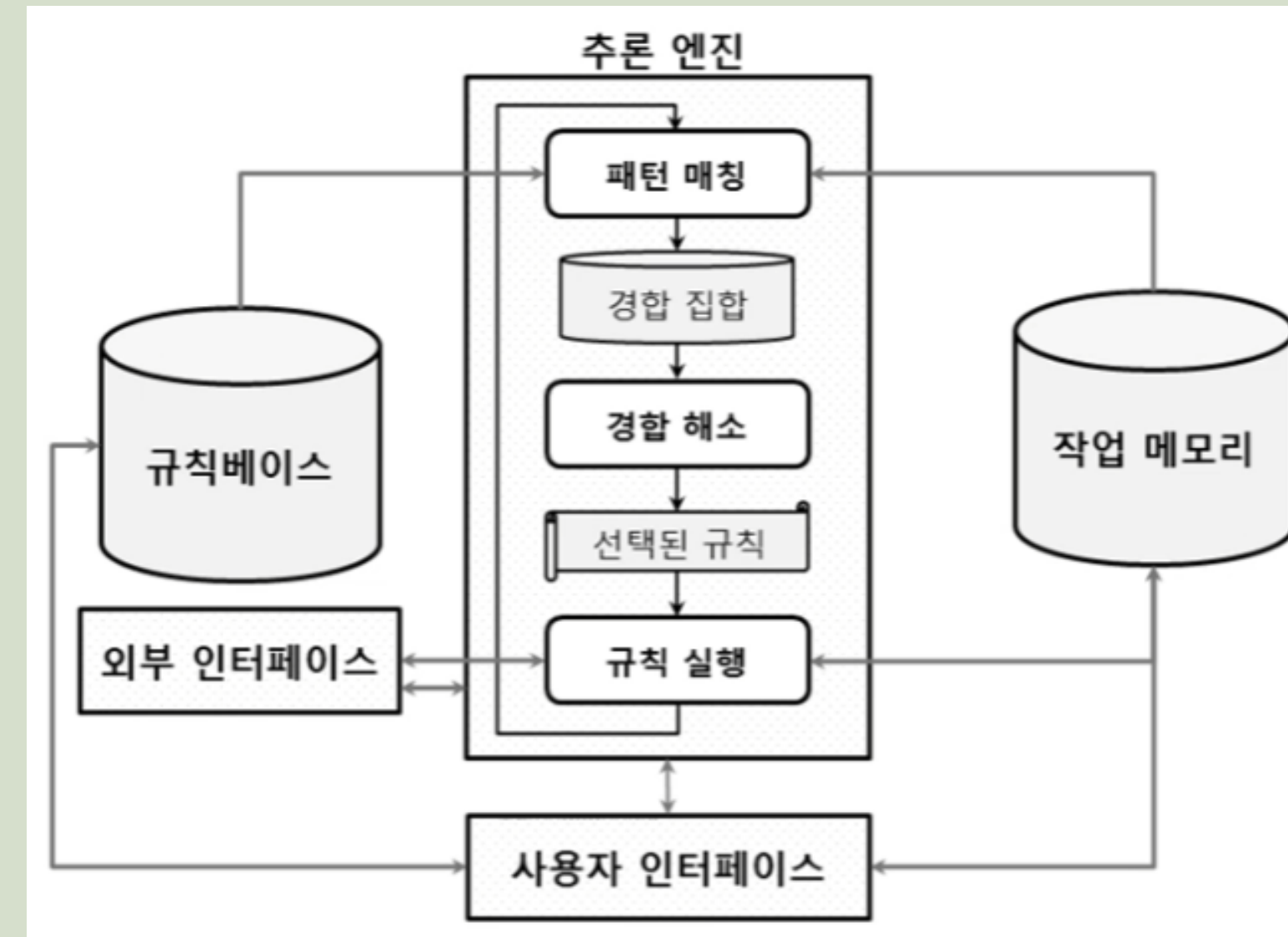
학습 알고리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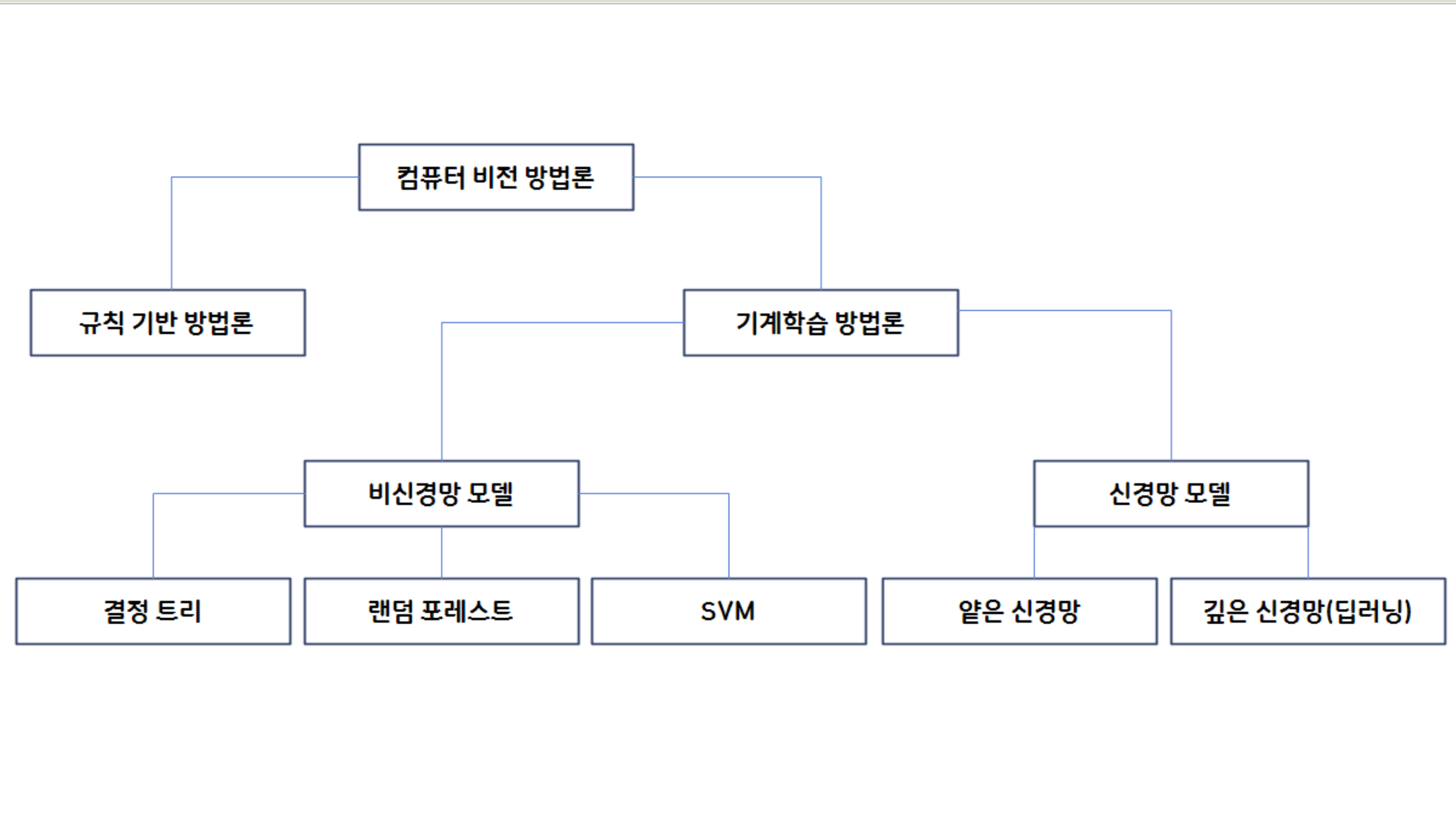
# 딥러닝과 기계학습

# 방법론의 대전환

-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의 대부분 : 고전적 컴퓨터 비전 (지역 검출, 영역 검출 등)
- 고전적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한 방법 : 규칙 기반(rule-based)
- 하지만 규칙 기반에는 한계가 존재!
  - > 규칙 기반은 ‘수작업’ 특징을 가지고 있음.
  - > 이는 대부분 규칙으로 표현되는데, 데이터에 따라 최적의 필터를 설계해야 한다.
- 그러나 규칙 기반을 사용하는 고전적 컴퓨터 비전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함!
- 따라서, 그 이상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!



# 딥러닝의 대전환



# 딥러닝의 대전환

- 신경망은 얇은 모델로 출발하여 점점 깊어지며 발전  
-> 퍼셉트론, 다층 퍼셉트론, 깊은 다층 퍼셉트론
- 딥러닝의 영향력  
-> 자연어 처리(NLP), ex. 챗봇, Chat GPT  
-> 지능 게임 분야 ex. 알파고
- 이러한 딥러닝 기술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있으며,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!



# 기계학습 기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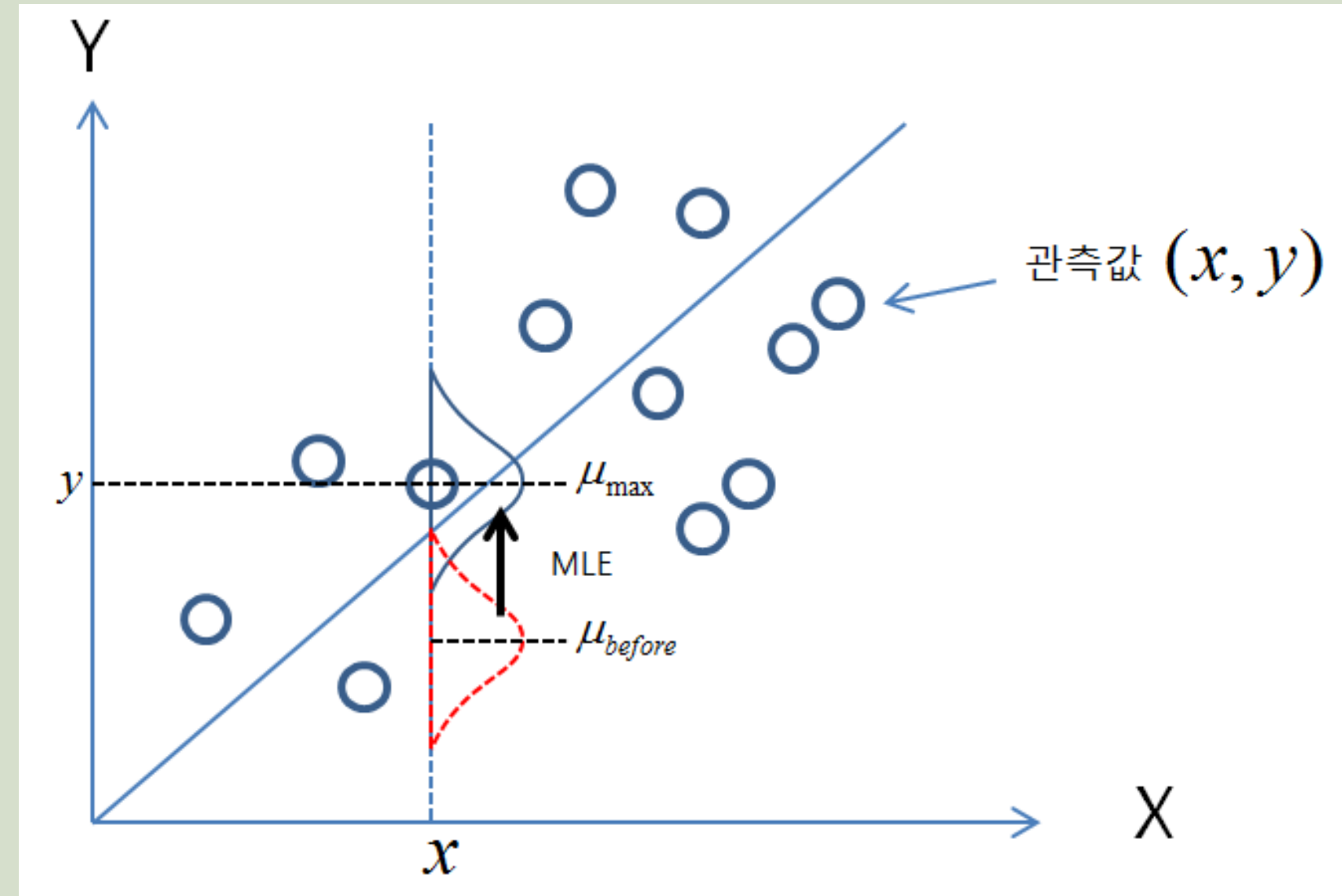
- 기계학습의 단순한 예
- Ex. 보일러로 설명

1. 기름을 더 분사하면 보일러 온도는 상승한다.
2. 보일러 공학자는 기름 분사량을  $X$ , 온도를  $Y$ 로 두었다.
3.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함수에 관심을 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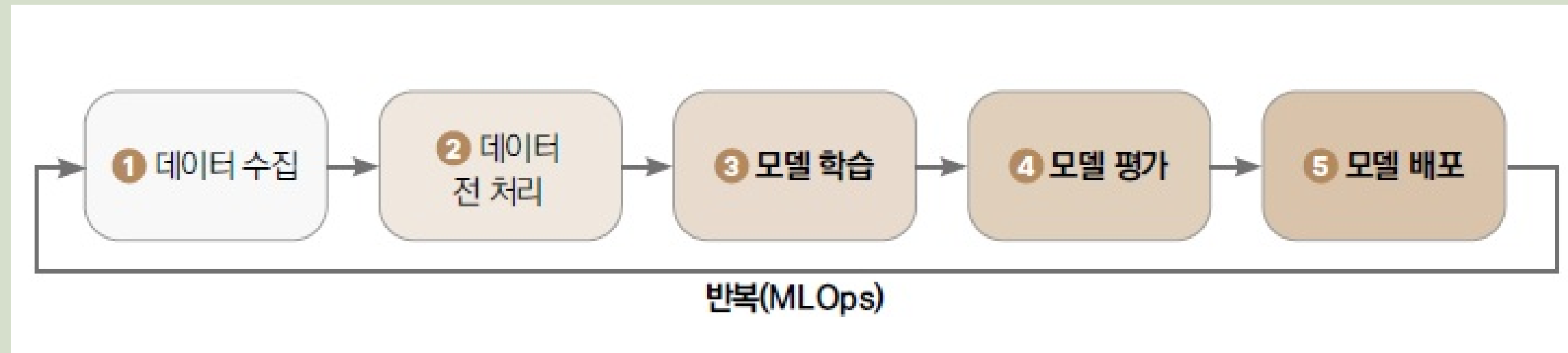
-> 여기서 기계학습은 함수를 모델이라고 부르고, 수집한 데이터로 방정식을 풀어 함수를 알아내는 일을 '학습'이라고 한다.

$$\text{기계학습 모델 : } Y = f(X)$$

학습된 모델로 특정 분사량에 대해 온도를 예측하는 일 '예측'



# 기계학습의 4단계



1. 데이터 수집 : 회귀,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의 구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.  
데이터 수집에는 많은 비용이 들며, 레이블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적절한 데이터셋을 찾는 것도 중요.

2. 모델 선택 : 직선형 모델, 비선형 모델 등 적절한 모델을 선택.  
Ex. X와 Y의 관계가 더 복잡한 경우라면 비선형 모델을 사용. (가중치, 층 등)

3. 학습 : 훈련 집합에 있는 샘플을 최소 오류로 맞추는 최적의 가중치 값을 알아내는 작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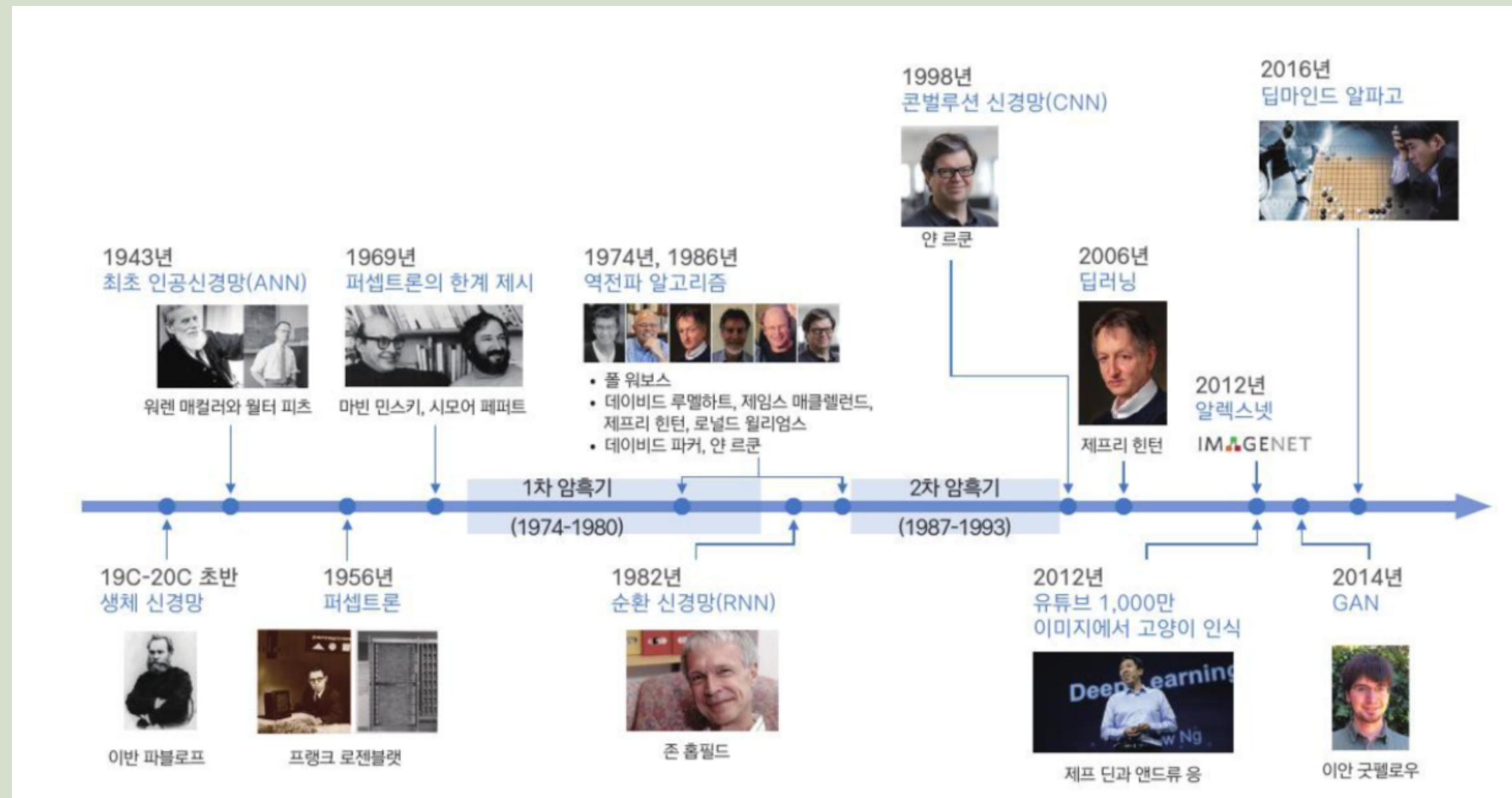
4. 예측 : 학습을 마친 모델, 가중치의 최적값을 가진 모델에 학습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특징 벡터를 입력하고 출력을 구하는 과정.  
Ex. K-겹 교차 검증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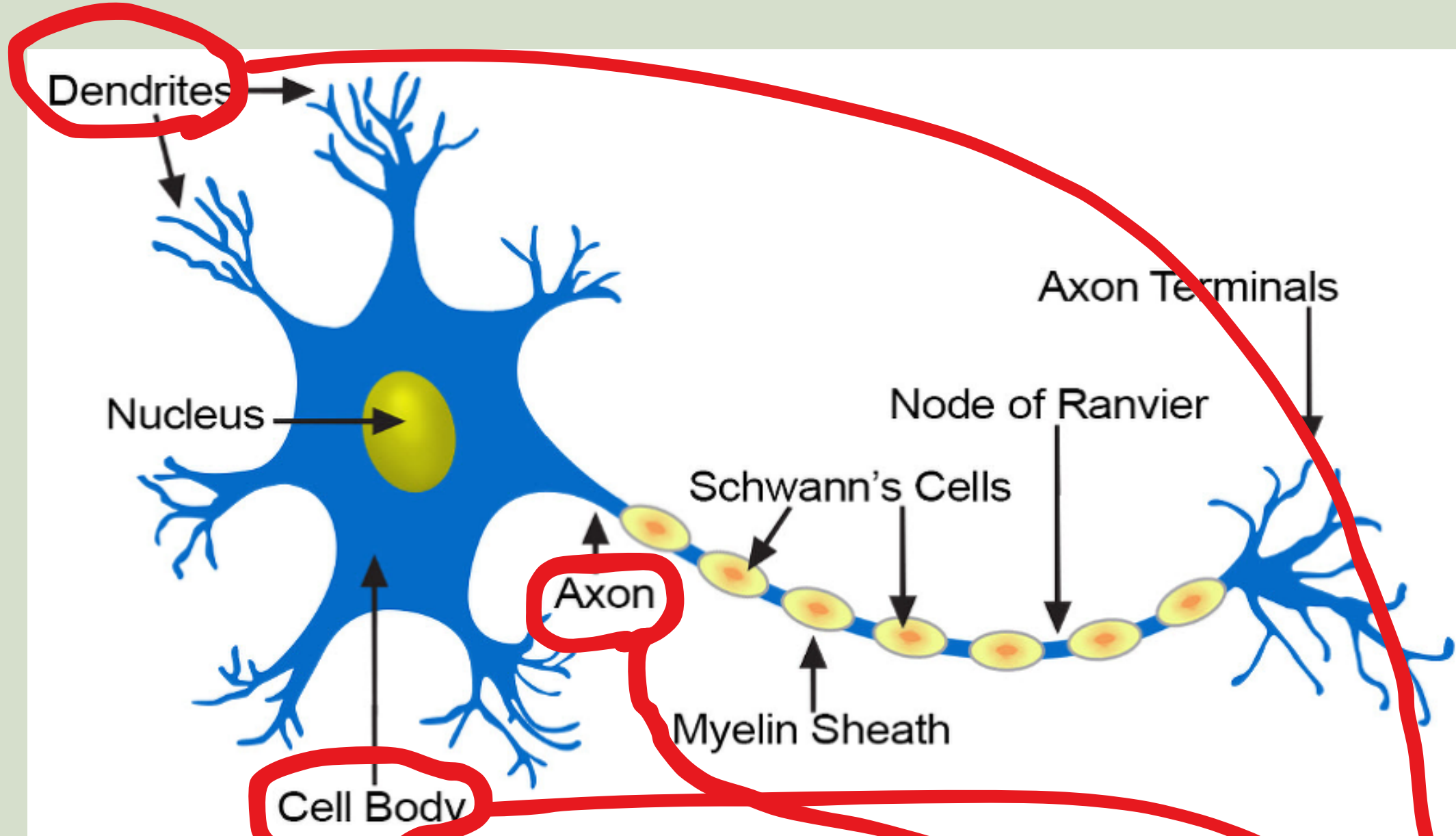
# 인공 신경망과 퍼셉트론

# 신경망 역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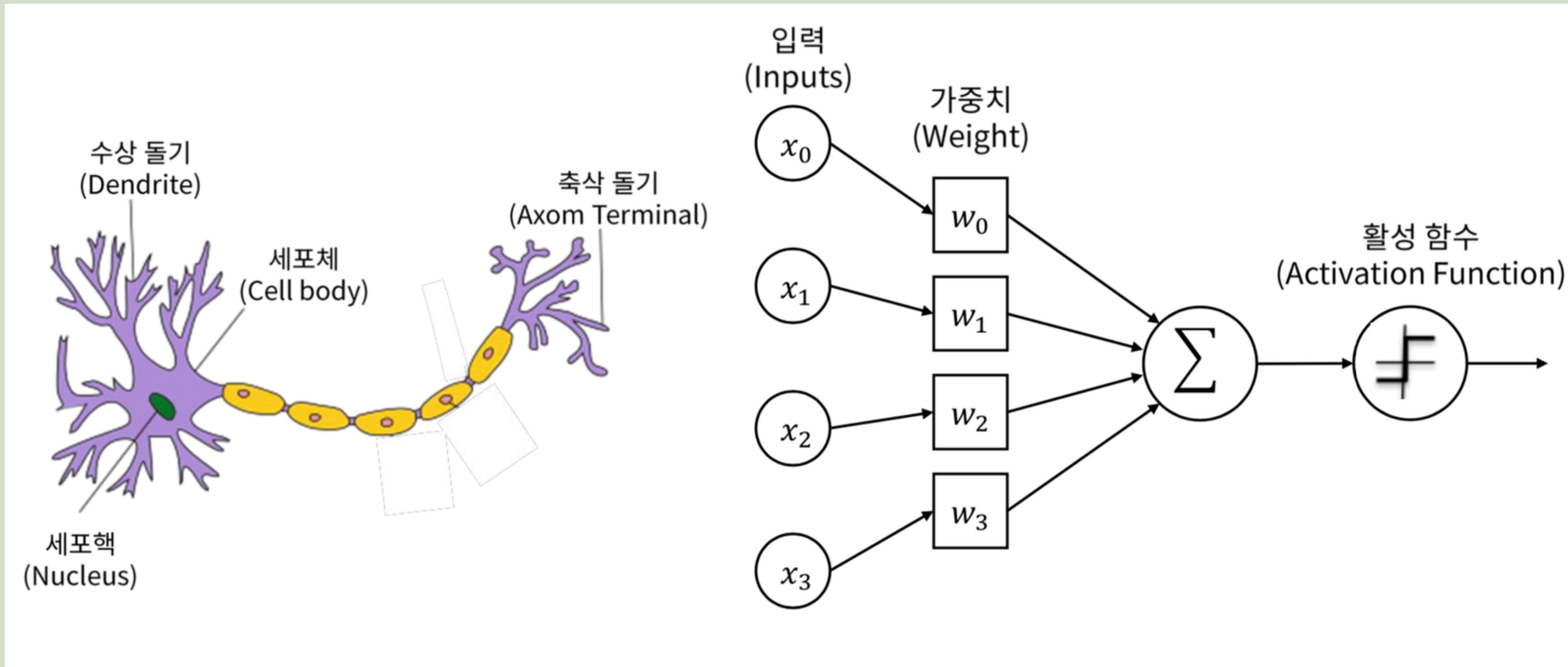
- 1900년대에 들어 인간 뇌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 힘입어 뉴런의 정체가 밝혀짐.
- 1946년에는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에니악이 탄생함.
- 이후 신경 과학자들은 컴퓨터로 인공 신경망을 구현하여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는 발상을 진행.

# 신경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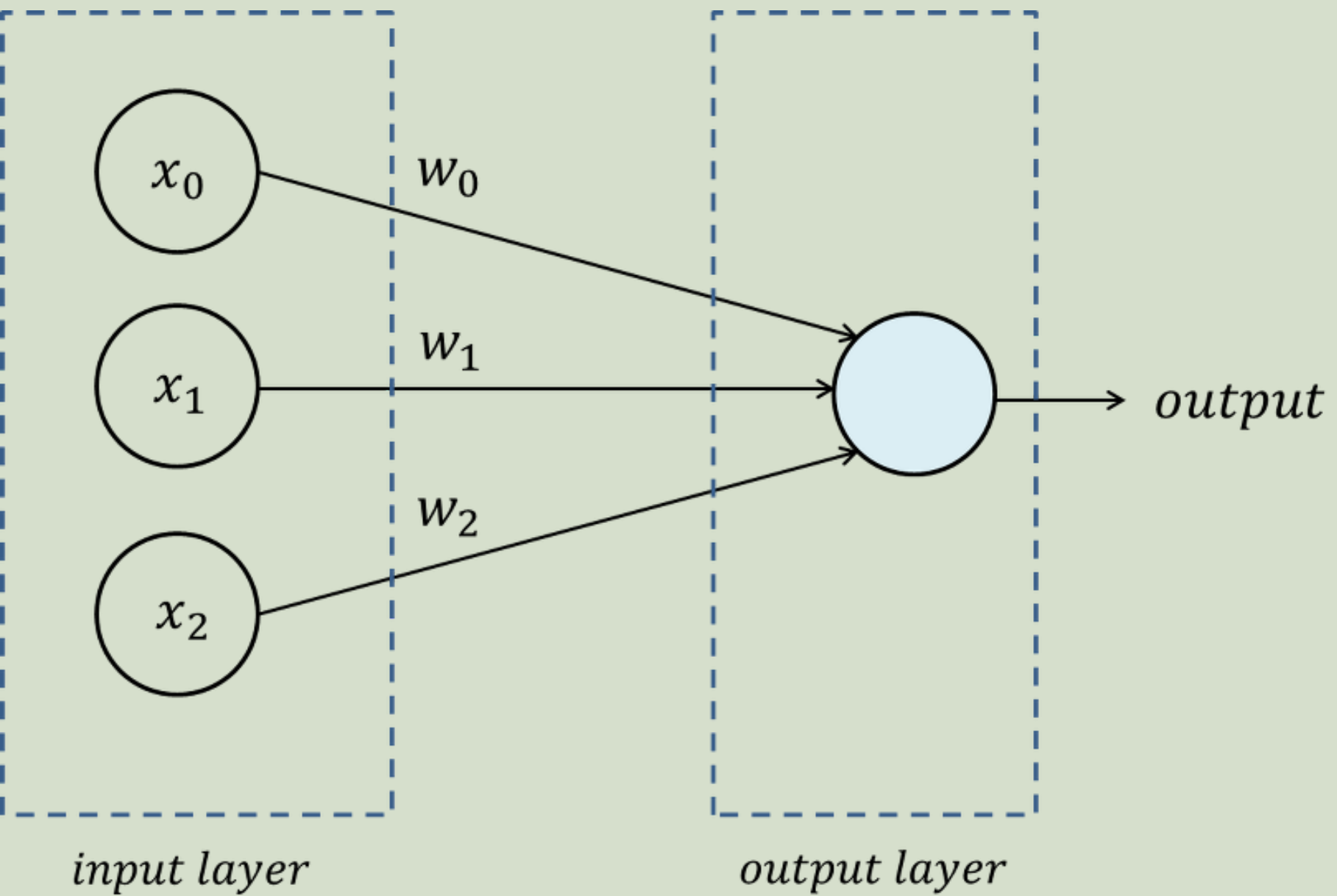
생물학적 신경망	인공 신경망
세포체	노드(node)
수상돌기(가지돌기)	입력(input)
축삭돌기(축색돌기)	출력(output)
시냅스	가중치(weight)

# 퍼셉트론



- 퍼셉트론은 로젠 블렛이 1957년 고안한 알고리즘, 입력 데이터를 2개의 부류 중 하나로 분류하는 분류기.
- 노드, 가중치, 총과 같은 개념이 도입되어 딥러닝을 포함하여 현대 신경망의 중요한 구성요소들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음.
- 2개의 부류 중 하나로 분류하는 분류기 -> 특정 공간을 2개의 부분 공간으로 나누는 함수.

# 퍼셉트론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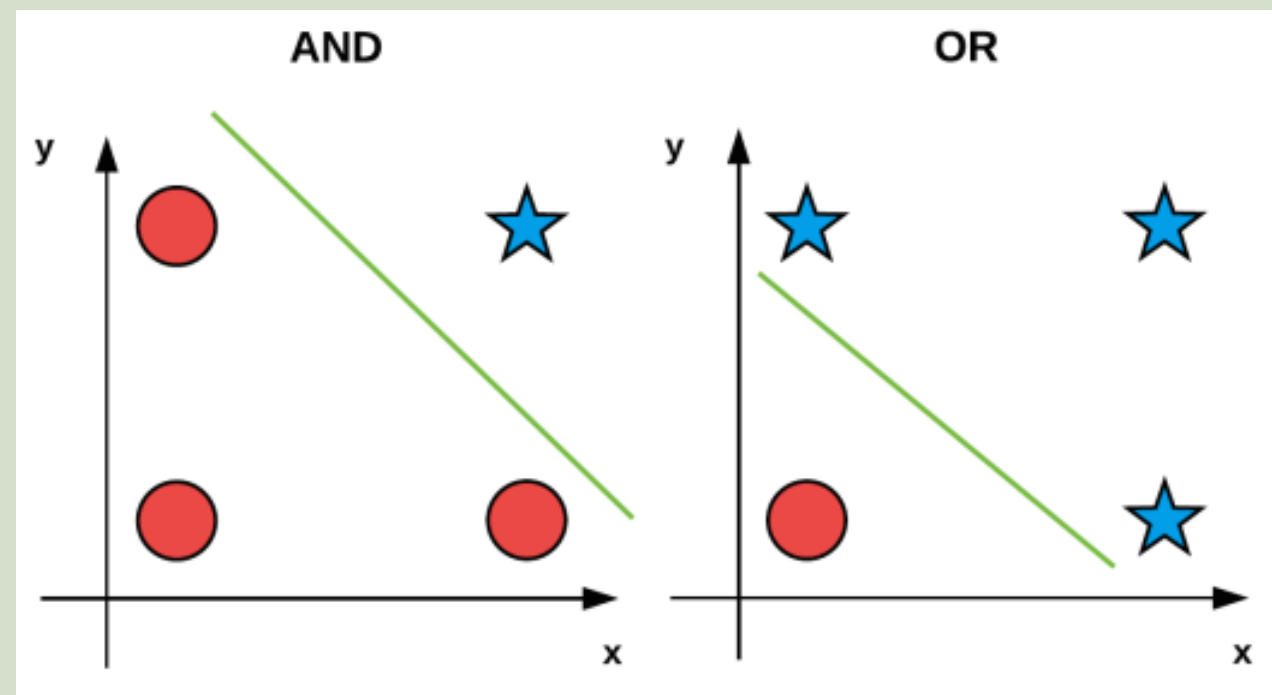


- 입력층에는 D차원 특징 벡터를 받기 위한 d개 노드와 1개의 바이어스 노드가 있다.
- 출력층에는 노드가 하나 있다.
-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를 연결하는 에지에 있는 W값은 가중치라고 한다.
- 출력 노드는 입력 노드의 값  $x$ 와 에지에 있는 가중치  $w$ 를 곱해서 얻은  $d+1$ 개의 곱셈 결과를 더해  $s(\text{Logit})$ 를 구한 다음,  $s$ 를 함수에 통과시켜 얻은 값 Output을 출력하는 구조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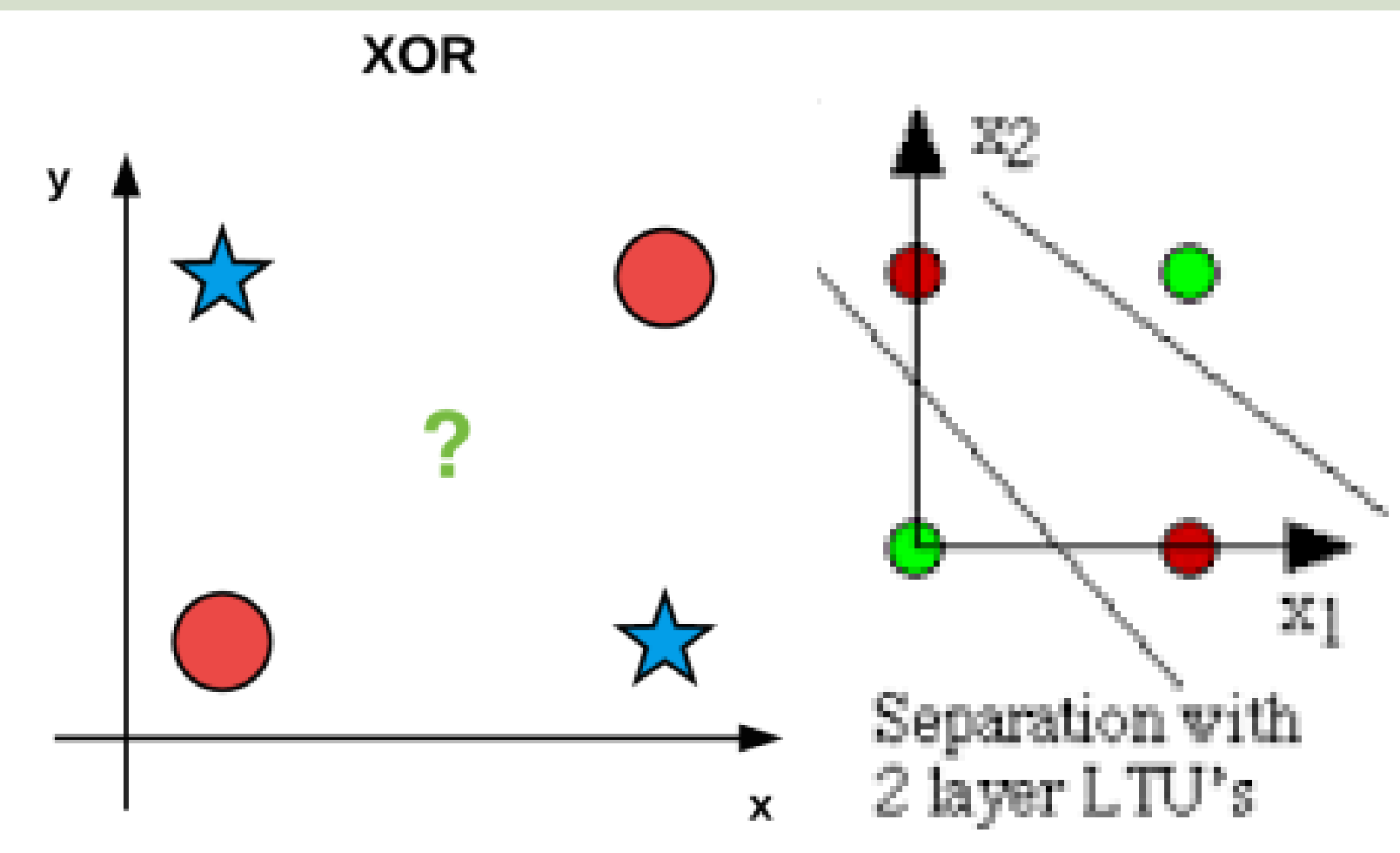
# 퍼셉트론의 연산

- 퍼셉트론은 학습에 의해 선형분리 가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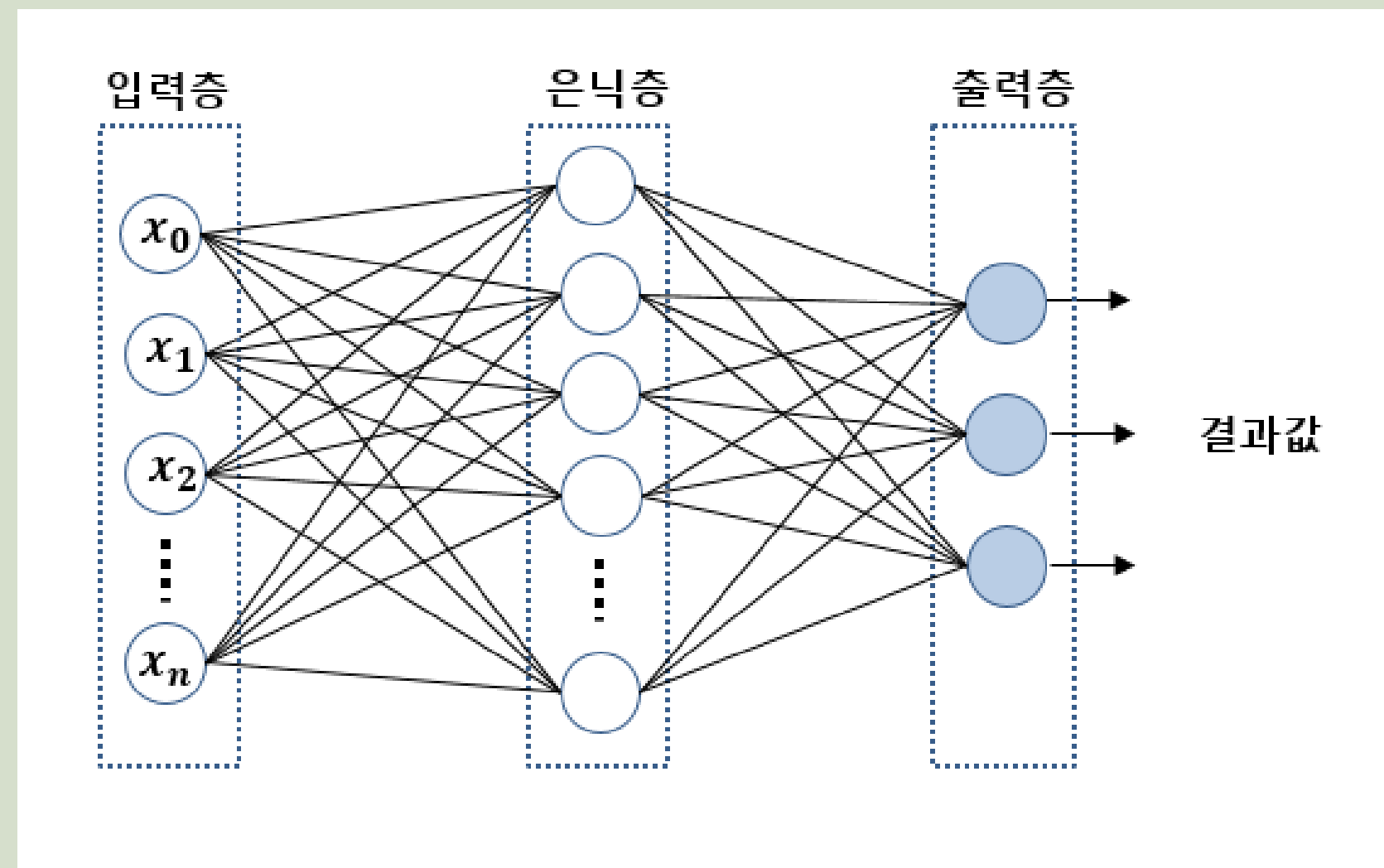
X1	X2	X1 AND X2	X1 OR X2
0 (F)	0 (F)	0 (F)	0 (F)
0 (F)	1 (T)	0 (F)	1 (T)
1 (T)	0 (F)	0 (F)	1 (T)
1 (T)	1 (T)	1 (T)	1 (T)



# 다층 퍼셉트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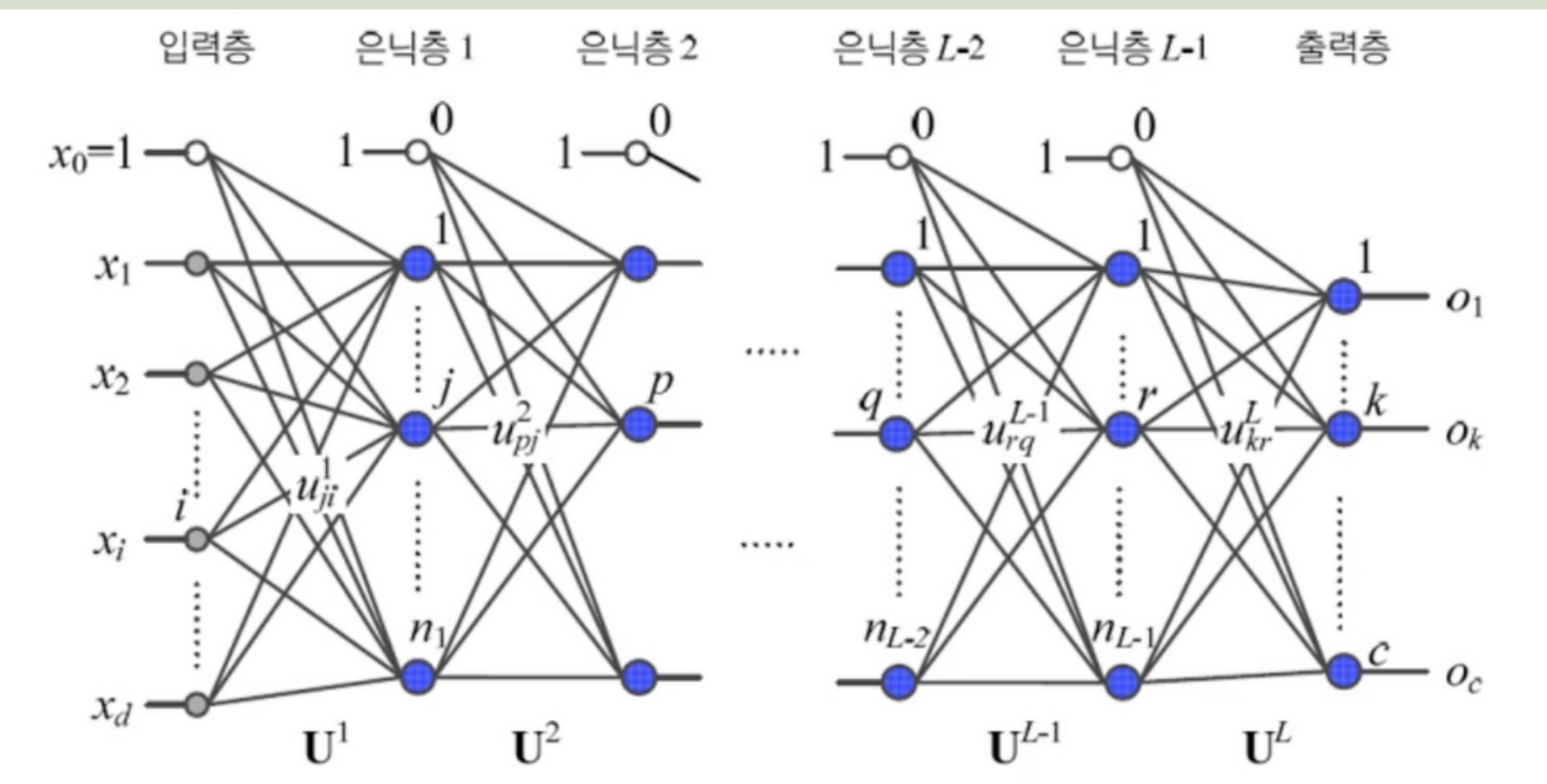


- XOR 논리연산을 단층 퍼셉트론이 풀 수 없음.
- 하지만,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였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
-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은닉층이 존재하는 퍼셉트론.  
(이것이 단층 퍼셉트론과의 차이!)





# 깊은 다층 퍼셉트론



- $L-1$ 개의 은닉층
- 마지막  $L$ 층은 분류층

- $L$ 번째 층의 가중치 행렬
- 층 번호는 입력층을 0번째 층, 은닉층  $l$ 을  $l$ 번째 층, 출력층을  $L$ 번째 층으로 매긴다.

$$\text{가중치 행렬: } \mathbf{U}^l = \begin{pmatrix} u^l_{10} & u^l_{11} & \cdots & u^l_{1n_{l-1}} \\ u^l_{20} & u^l_{21} & \cdots & u^l_{2n_{l-1}} \\ \vdots & \vdots & \ddots & \vdots \\ u^l_{n_l0} & u^l_{n_l1} & \cdots & u^l_{n_l n_{l-1}} \end{pmatrix}, l = 1, 2, \dots, L$$



# 활성 함수

-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.
- 입력 신호의 총합이 활성화를 일으키는지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.

•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 :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linear하게 나오지 않으므로, 선형분류기를 비선형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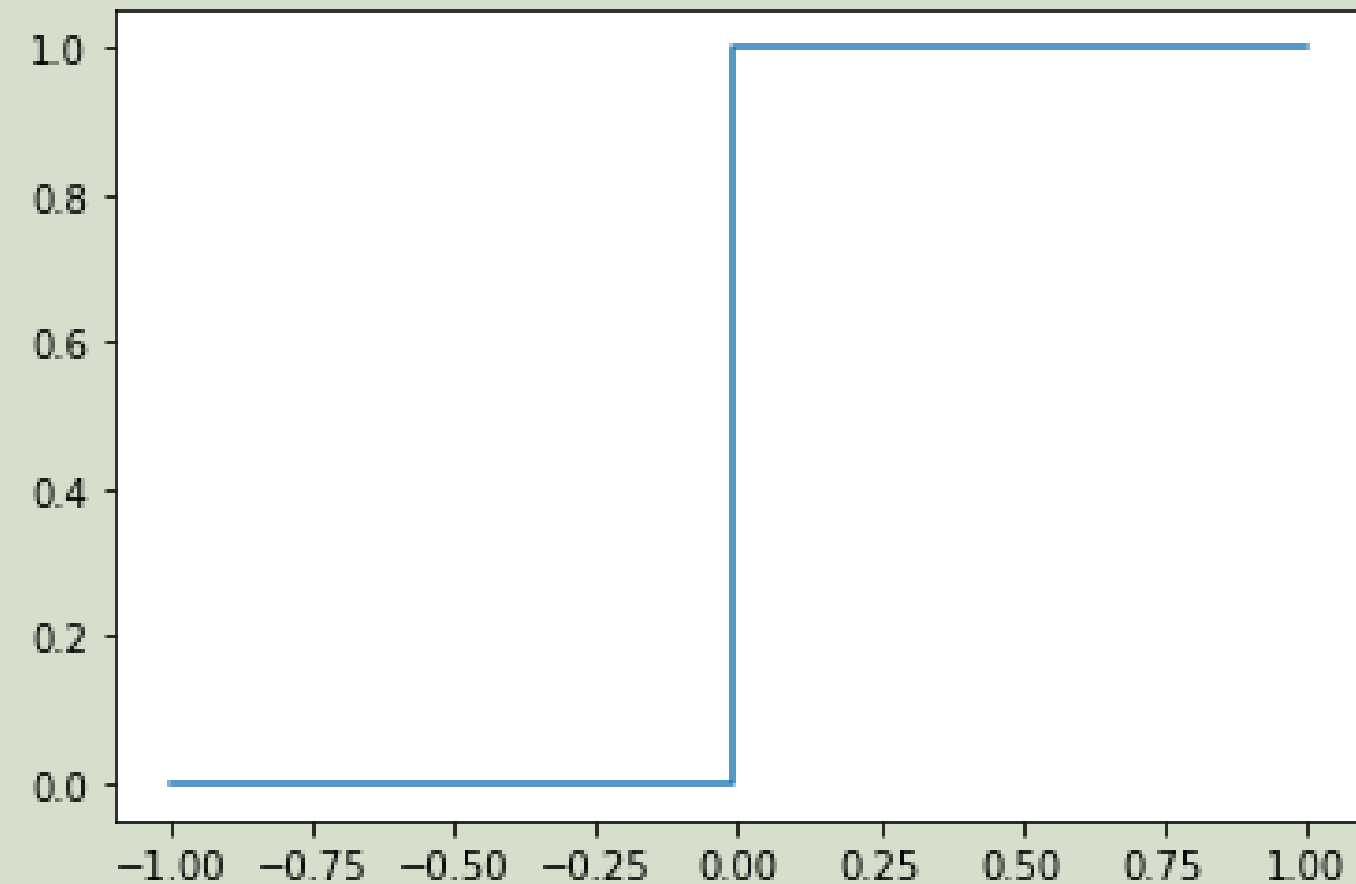
## 활성 함수 예시

### 계단 함수

- 입력이 0을 넘으면 1을 출력, 그 외에는 출력하는 함수.
- 이진 계단 함수는 0 or 1만을 출력하기 때문에 0인 부분은 미분이 불가능
- 1인 부분은 미분 시 모두 0으로 바뀐다.

-> 따라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은 불가능함.

$$f(x) = \begin{cases} 0 & \text{for } x < 0 \\ 1 & \text{for } x \geq 0 \end{cases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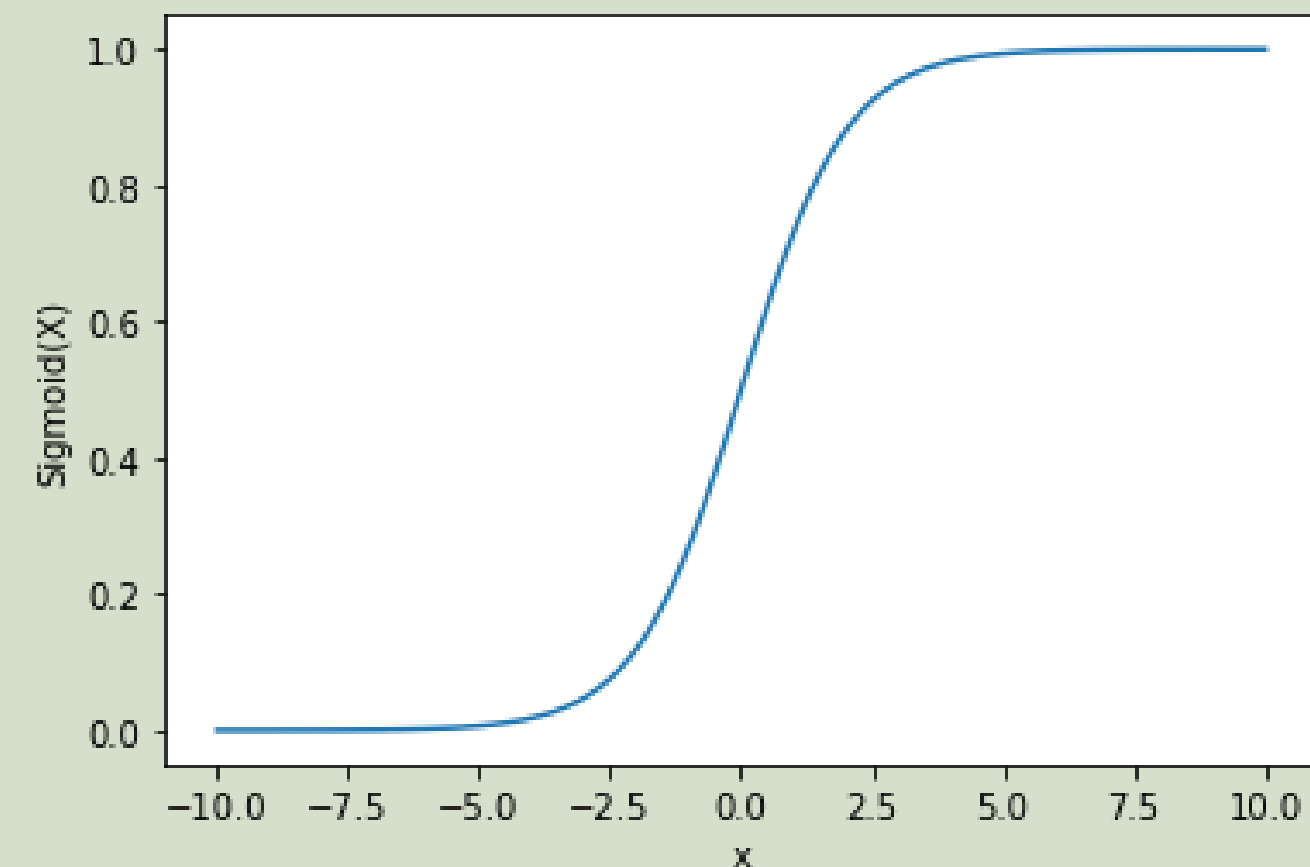


# 활성 함수

## 시그모이드 함수

- Logistic 함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함수
- x의 값에 따라 0~1의 값을 출력하는 S자형 함수.
- 하지만 음수 값을 0에 가깝게 표현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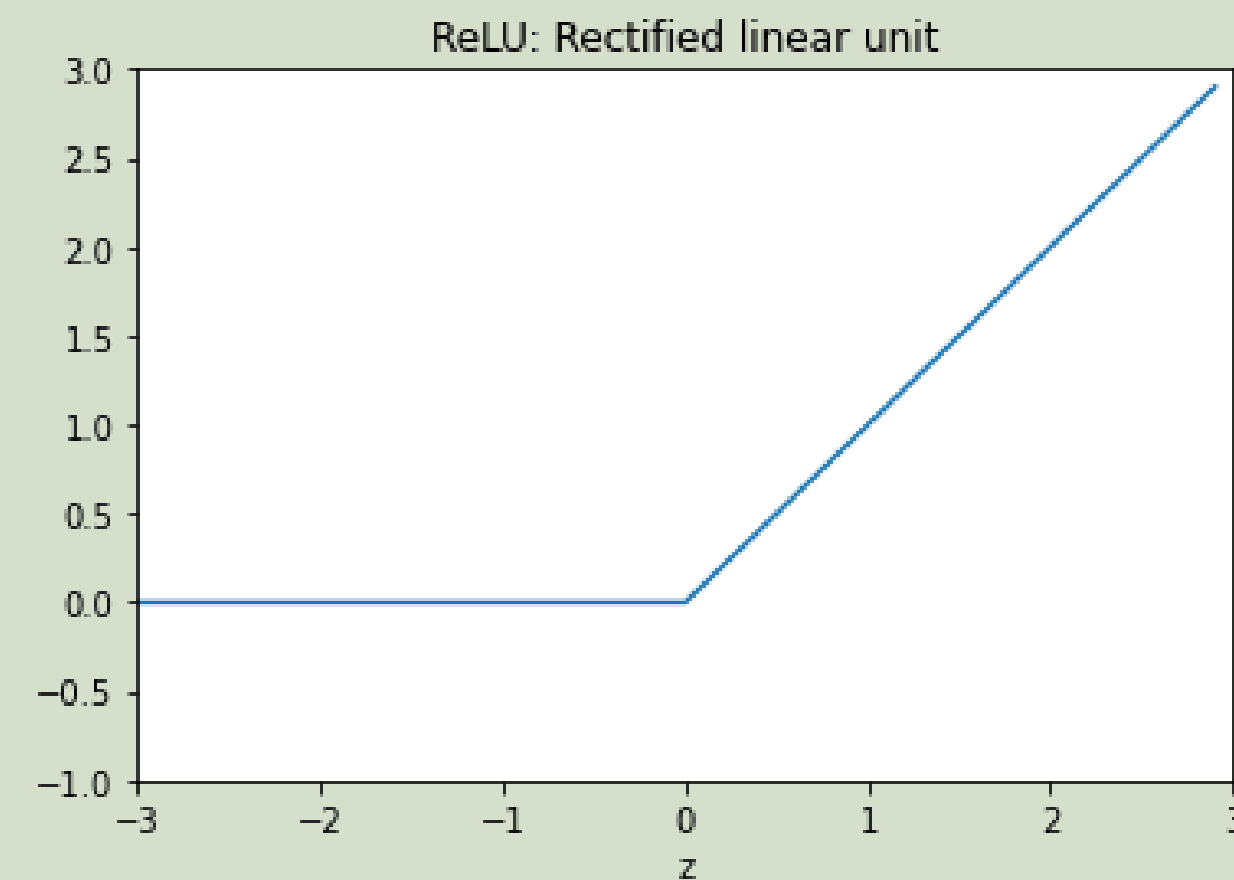
$$\textit{sigmoid}(x) = \frac{1}{1 + e^{-x}}$$



## RELU 함수

-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활성화 함수.
- 입력이 0을 넘으면 그 입력을 그대로 출력, 0 이하이면 0을 출력하는 함수
- 이는 0보다 작은 값들에서 뉴런이 죽을 수 있는 단점을 야기
-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학습이 빠르고, 연산 비용이 적으며,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음.

$$f(x) = \max(0, x)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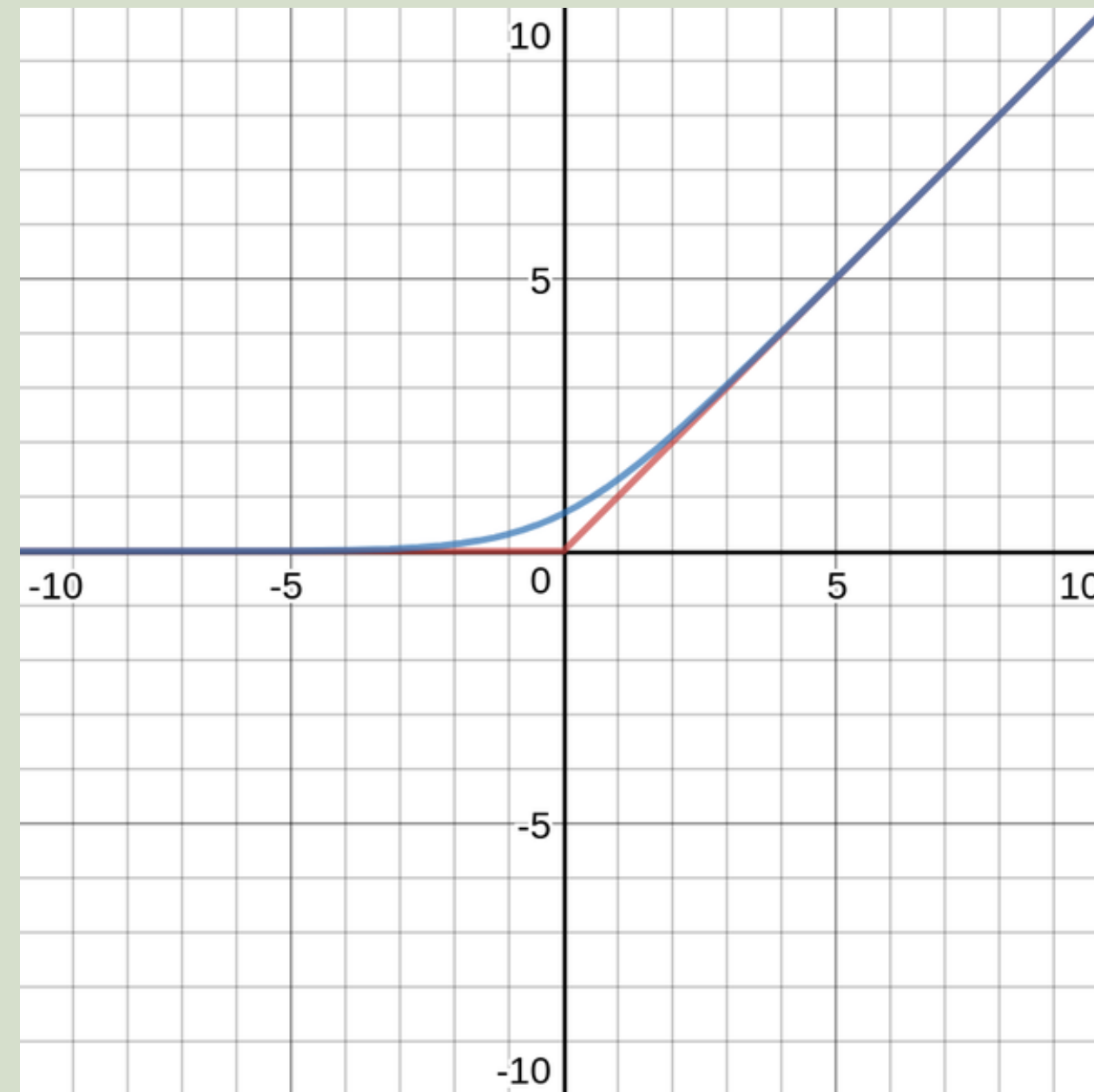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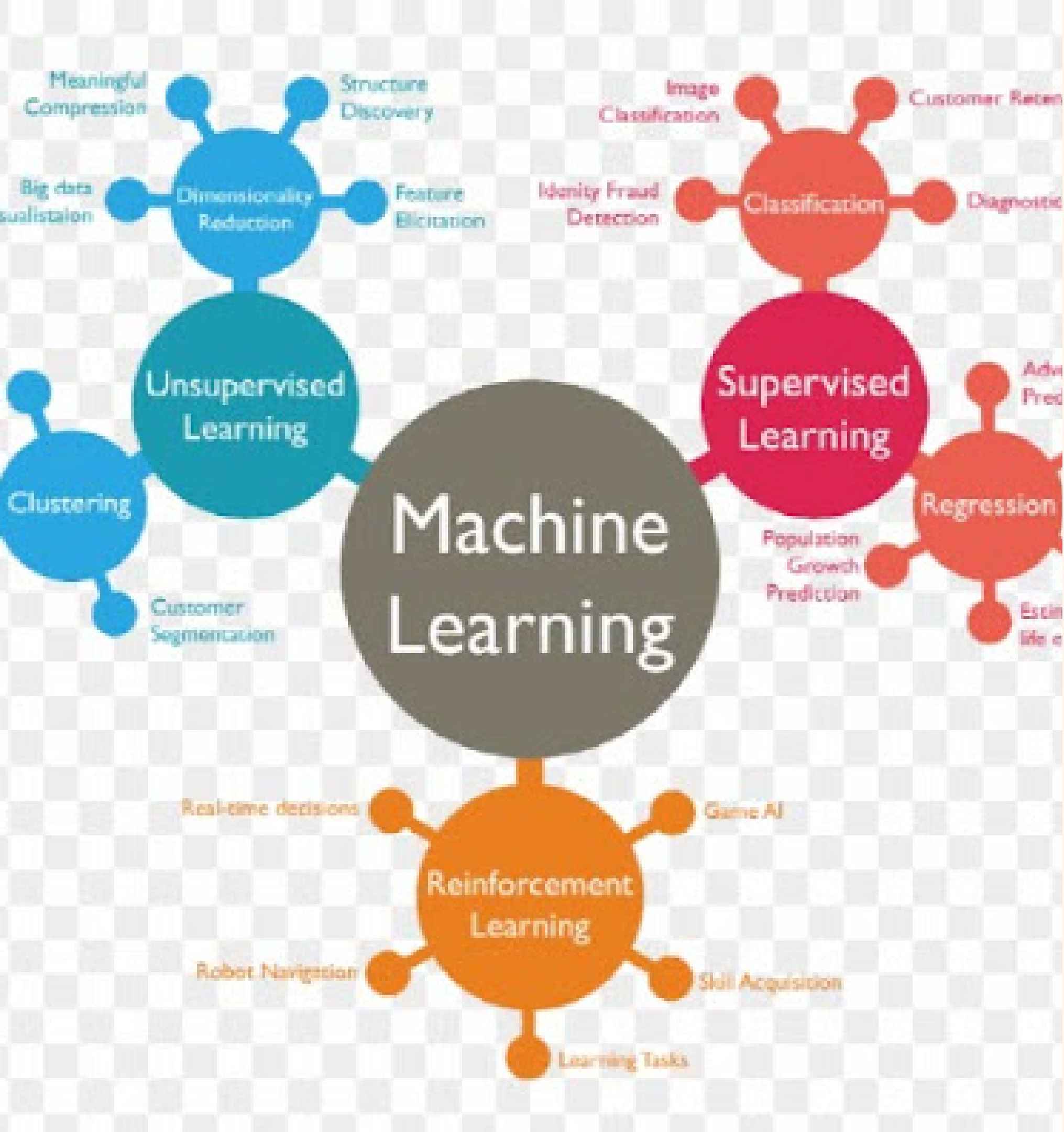
# 활성 함수

## Softmax 함수

- 신경망의 출력층에서 주로 사용되는 함수.
- 모든 출력 노드를 같이 고려함.
-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, 출력 벡터는 원소의 합이 1인 확률함수.
- 벡터의 각 원소를 정규화 하기위해 소프트맥스 함수는 입력값을 모두 지수 값으로 바꿔줌.
- 다중분류 로지스틱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유용하게 사용.
- 확률로 간주할 수 있기에 신경망의 최종 출력으로 적합.

$$\text{softmax}(x)_i = \frac{e^{x_i}}{\sum_j e^{x_j}}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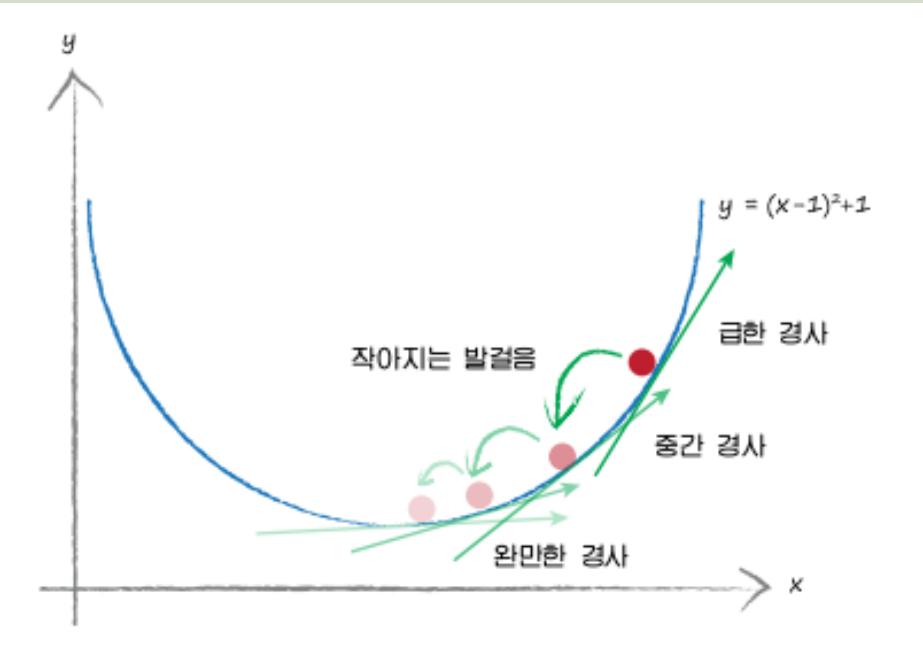


# 학습 알고리즘

# 경사 하강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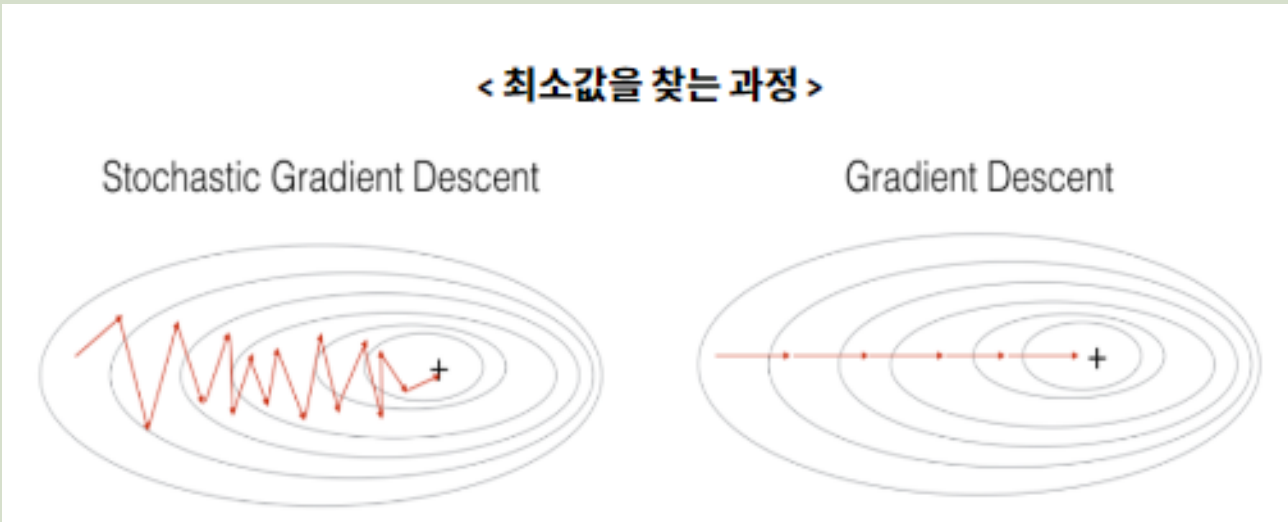
- 미분값을 보고 함수가 낮아지는 방향을 찾아 이동하는 일을 반복하여 최저점에 도달하는 알고리즘.
- 고차원 방정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,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제공.
- 핵심은 오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중치 값을 업데이트 하는 방법.

$$x_{i+1} = x_i - \alpha \frac{df}{dx}(x_i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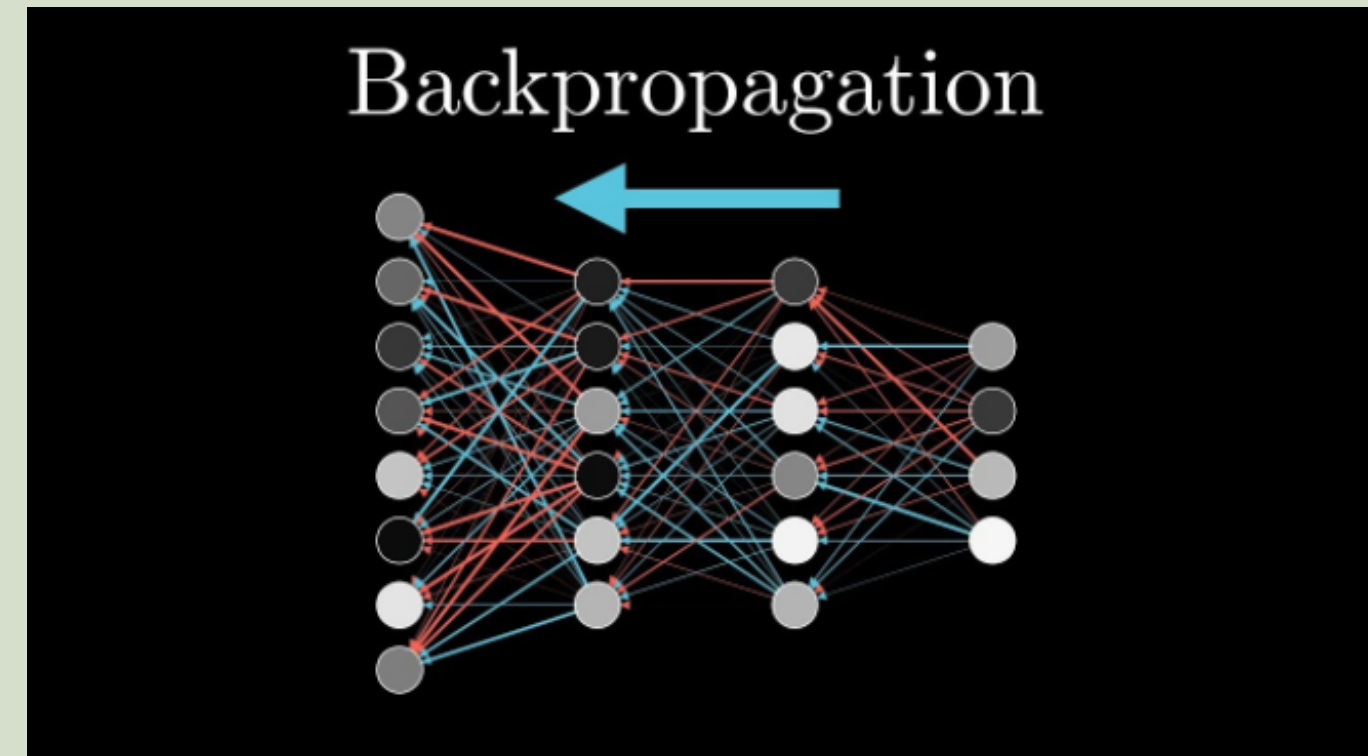
## 스토캐스틱 경사하강법으로 확장

- 딥러닝에 적용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확장해야 하는 것에서 배경.
-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확장된 경사하강법, 보통 SGD라고 부른다.(배치 크기는 1)
- 데이터 세트에서 무작위로 균일하게 선택한 하나의 예를 의존하여 각 단계의 예측 경사를 계산



# 역전파 알고리즘

- 오차가 본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전파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.
-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한다는 것은 최종 출력값과 목표값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(순전파, 역전파)
- 과정 : 순전파를 진행하여, 순전파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역방향으로 진행. (출력층 -> 은닉층 -> 입력층), 오차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과정이다. (오차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반복 학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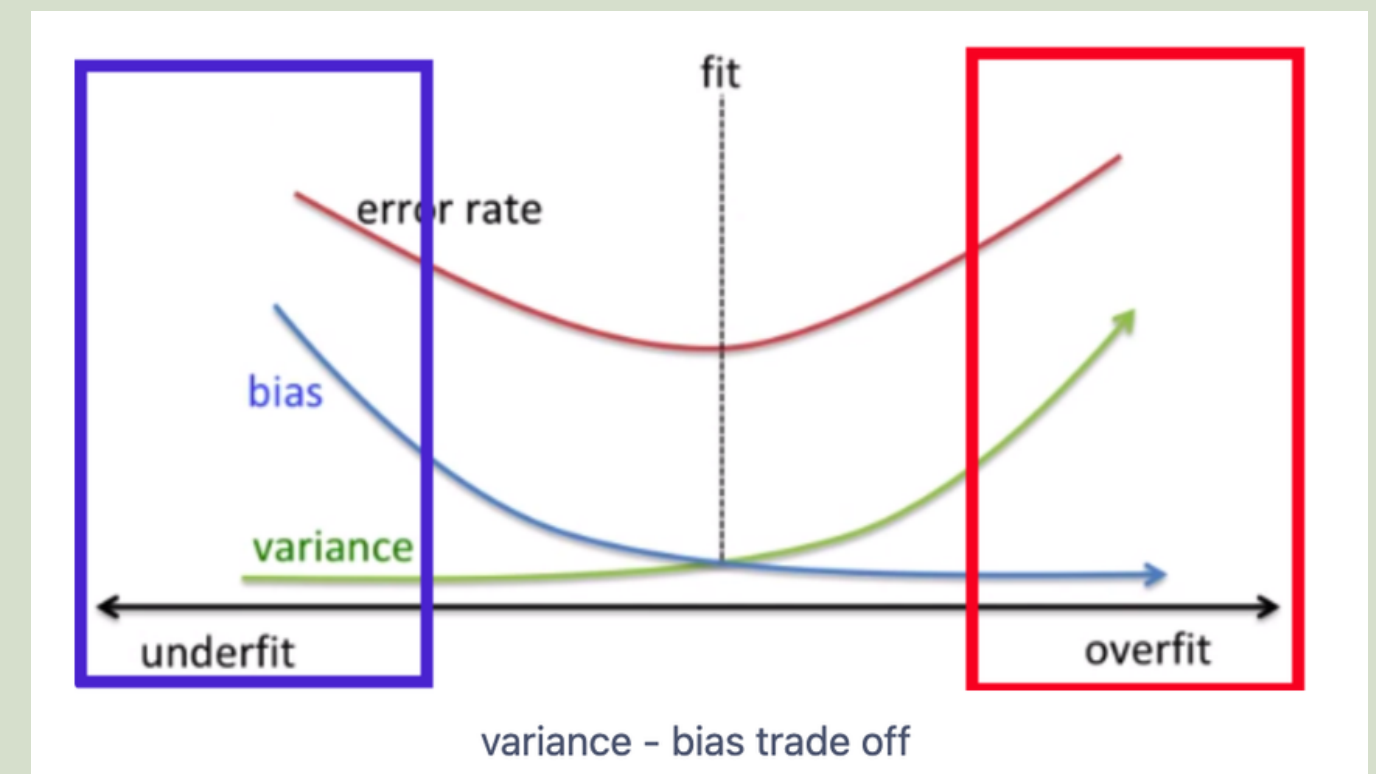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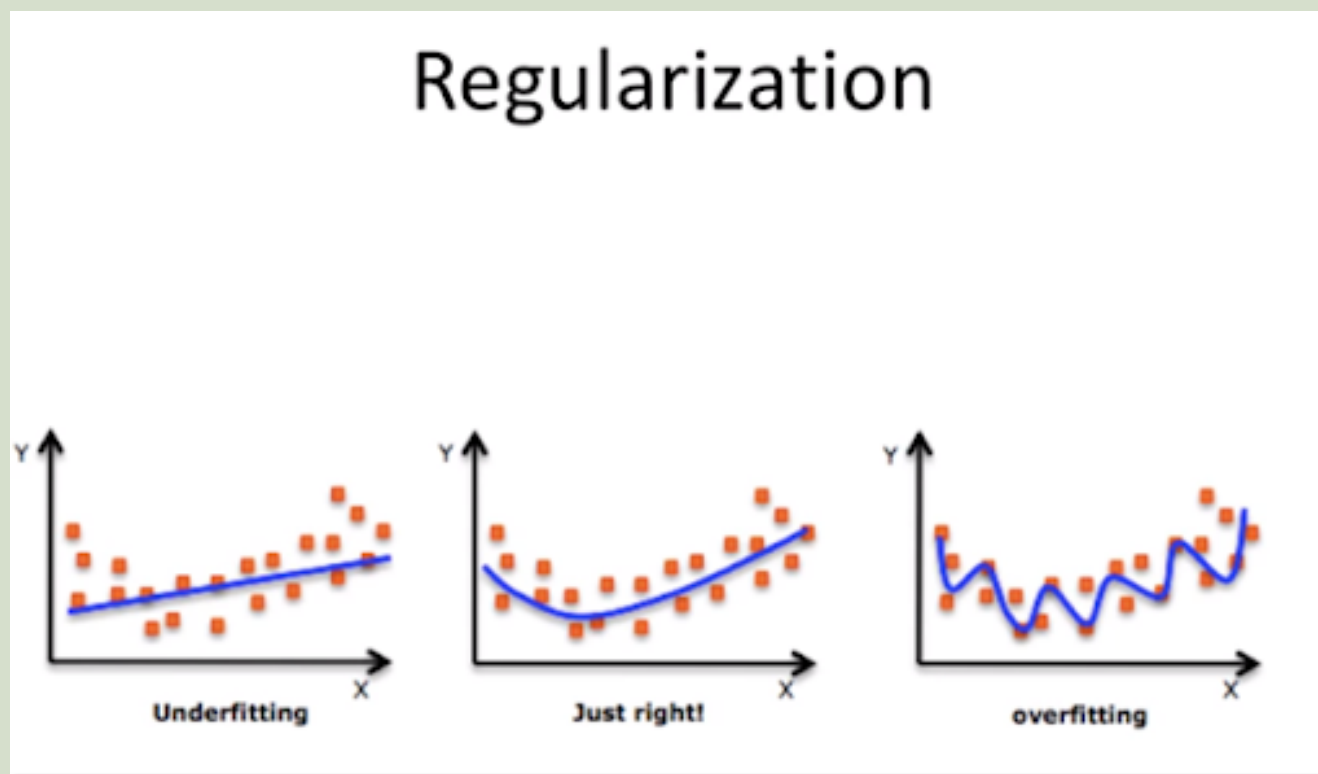
## Chain Rule

- 합성함수의 미분에 관한 법칙, 합성함수의 미분은 합성 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$$\frac{\partial z}{\partial x} = \frac{\partial z}{\partial t} * \frac{\partial t}{\partial x} \qquad \frac{\partial z}{\partial x} = \frac{\partial z}{\cancel{\partial t}} * \cancel{\frac{\partial t}{\partial x}}$$

# Overfitting

- 기존의 다층 신경망에서 가장 큰 문제는 ‘학습 데이터’를 너무 과하게 학습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
- 이를 ‘오버피팅’ 문제라고 말함.
-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이 너무 과하게 되어 높은 성능을 나타내지만, 실제 적용 시에는 모델이 일반화가 되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.



- 모델 복잡도 면에서 언더피팅(underfitting)과 오버피팅(overfitting)과의 트레이드 오프(trade-off)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.
- 위의 그림을 통해서 대개 모델이 복잡할수록 예측 오차는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.
- 따라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.(파라미터 조정, Dropout, 규제 등)